

“목포항 조기 따는 풍경 볼만하네”

9월~3월 풍어기 이색 볼거리...관광상품 만들자

서해안에 조기 어장이 형성되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목포 선창 물양장 수협위판장은 조기를 그물에서 떼는 아줌마 부대로 장관이 연출된다.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이색적인 풍경에 호응을 보내고 있다.

이에 목포지역 관광업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목포항의 '조기 풍어' 모습을 관광상품화 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유달산·삼학도도 좋지만 계절 관광상품을 만들어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목포시가 운영중인 '시티투어' 코스에 이 곳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티투어 연간 이용객이 7000명에 달해 이를 이용하는 외

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소개하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조기 풍어는 관광상품으로서 가치도 높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엄청나다. 지난해 목포수협 위판액은 1400억 원대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순수 조기 위판만 1만 7000t에 800억 원대에 이른다.

인력시장도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배 한 척당 조기를 따는 데 필요한 인력은 평균 50~70여명, 이들은 대개 12시간~20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시간당 1만~1만2000원의 일당을 받는다. 배 한 척당 인건비로만 1억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조기 따는 모습을 관광상품으로 만들면 관매가 더욱 활성화돼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수 목포시의원은 “목포가 내놓을만한 뚜렷한 특산품이 없는 마당에 ‘목포=조기’를 연상시킬 수 있다면 돈 안들이고 목포를 홍보하는 효과는 물론 관광객 증가로 일거양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시 정효진 해양수산과장은 “조기가 생산되는 과정을 직접 보여 줌으로써 관광객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해 관측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에 즉석 관매가 가능한 소포장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11일 목포시 동명동 선창에서 인부들이 그물에서 조기를 떼내느라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다. 어선들은 서해안 횡망어장의 '참조기 풍어' 덕에 그물째 싹고와 선창에서 조기를 선별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총선 물갈이 쓰나미 온다”

정치권 '돈봉투' 악재 민심 최악
3개월 앞두고 현역의원 초비상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당장,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바람이 '태풍'급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물갈이 바람 등에 얽은 총선 예비 후보들의 지지율도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수성에 초비상이 걸렸다.

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역 바닥 민심이 일기 시작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바람은 새해 들어서 '태풍'급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물갈이 바람은 새해 들어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 조선일보 등 중앙 언론사와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호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교체 지수는 50%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해 들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일각에서는 4월 총선에서 물갈이 바람이 태풍을 넘어서 ‘쓰나미’급이 되지 않느냐는 흥흥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김부겸, 문성근, 이학열 후보 등 민주통합당 당권주자들도 당내 기득권 포기를 명분삼아 공개적으로 ‘호남 물갈이’를 거론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정당대회에서의

지도부 구성 결과에 따라, 4월 총선 호남 물갈이의 흐름과 폭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의 정당대회 ‘돈 봉투’ 논란은 총선을 앞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감과 물갈이 여론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물갈이 여론 확산을 바탕으로 총선 예비 주자들의 지지율도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 현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1~2명을 제외하고 지지율에서 총선 예비주자들과 광한 접전을 벌이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광주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지만 총선 예비주자들과의 지지율 격차가 안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전남지역 다선 의원들은 ‘불출발’ 압력에도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여론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역구 수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임시국회 회기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구에 상주하며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광주 모 국회의원 보좌관은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의원이 직접 행사 참석을 행하는 등 사실상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2년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 2012.01.13(금)까지
www.kwangshin.co.kr
입학문의 (062) 605-1112
문의 (062) 605-1023

교수들 무한경쟁 속으로

국립대 교수 성과 연봉제 첫 시행
전남대·목포대 등 내달 실적 평가

전남대와 목포대 등 전국의 국립대가 지난해 신규 임용한 교수들의 실적을 다음 달에 평가해 처음으로 '성과별 연봉'을 지급한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의 성과를 평가해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성과급 연봉제'의 근거가 지난해 마련된 이후 첫 평가가 다음 달 이뤄진다. 적용 대상은 작년 임용된 전국 41개 국립대(4년제·전문대)의 신입교수 480여명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연봉은 올해 중 지급한다.

이에 따라 41개 국립대는 작년 채용한 교수들을 4개 등급(S·A·B·C)으로 평가한다. 등급별 비율은 최상위 S등급 20%, A 30%, B 40%, 최하위 C등급 10%지만 대학별로 등급 비율을 ±5% 이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S등급의 경우 평균 성과연봉의

1.7배까지 받을 수 있다.

전남대는 지난해 임용된 교수 42명에 대한 평가를 마친 상태며, 이중 S등급은 7명이며 A등급 13명, B등급 14명이다. 나머지 8명은 각각 소속 단과대에서 상대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 교수가 없는, 지난해 임용된 유일한 교수여서 등급 평가없이 정부가 정한 성과연봉 기준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목포대의 성과급제 연봉제 대상은 총 9명이며, 이중 S등급 2명·A등급 3명·B등급 4명 등이고 C등급은 한 명도 없다.

성과급제 연봉제는 지난해 1월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돼 도입, 작년 채용한 교원에겐 올해 적용되며 재직 교원의 경우 비정년 교원은 2013년부터, 정년보장 교원은 2015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박희태 前비서 자택 압수수색 돈봉투 수사 급물살

검찰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 중 한 명인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고모(41)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8~10시 경기 일산의 고씨 자택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고씨가 자진 출석하는 형식으로 오전 11시부터 공판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그가 고승덕 의원실에 건넨 300만원이 돈 봉투를 되돌려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고씨의 진술에 따라 어느 정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고씨가 전대 직전 고 의원실에 돈 봉투를 직접 전달한 '불태 안경'을 쓴 30대 초중반의 남성'과 동일인물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 특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하지만 박 의장 측 관계자는 “고씨는 돈 봉투를 건넨 인물이 아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전라남도 「어업인주식회사」에서 생산한 친환경 수산물을 구입 하세요

어업인주식회사는 생산 어업인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어업회사법인」입니다



www.jmgim.com
장흥무산김
산(酸)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순수 자연 그대로의 방식과 친환경 자연 김 -
장흥무산김 (주) T.(061)867-7755

www.wakoreankr
푸른바다의 맛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전북유명회사 신선한 원료와 최첨단 가공시설 -
완도전복 완도전복(주) T.1577-8855

www.신안새우젓.com
신안새우젓
세계적인 신안 천연염으로 저온숙성시켜 더욱 맛깔스러운 -
신안새우젓(주) T.(061)262-8989

ISO 22000:08
남해안 청정해역에서 불배멸치 조업방식으로 생산한 멸치
해맑은 푸른바다 신선멸치
여수녹색멸치(주) T.(061)685-2026~8